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대한민국 제1의 관문에 새로운 감각을 입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which opened on January 18, boasts the curved, 50-meter high ceiling comprising thousands of louvers and the spacious landscaping area reminiscent of a botanical garden. Hyundai E&C materialized three concepts of art, eco and smart by capitalizing on unique elements rarely offered by airports across the world.

▶ Continued on page 6,7

최고 50m 높이에 수천 개의 루버로 이뤄진 곡선형 천장, 식물원을 연상케 하는 넓은 조경 공간... 1월 18일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세계 어떤 공항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를 담아 제2여객터미널 실내에 '아트' '에코' '스마트' 콘셉트를 구현했다.

▶ 관련기사 6, 7면



*Toward
Global
Top Tier*

현대건설 무술년 마수걸이... 총 11억 달러 규모 싱가포르 매립공사 수주

싱가포르 투아스 터미널 Phase 2 매립공사... 일본 펜타오션·네덜란드 보스칼리스사와 공동 수주

현대건설이 2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총 11억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아스 터미널 Phase 2(Tuas Finger 3) 매립공사를 따내며 2018년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일본의 펜타오션·네덜란드의 보스칼리스사와 공동 수주한 이 프로젝트의 현대건설 지분은 35%(약 3억9000만 달러, 약 4100억원)다.

이 공사는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이 발주한 해상 매립공사로 싱가포르 서단에 위치한 투아스 항만단지 지역에 면적 387ha(헥타르)의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확장된 국토는 향후 항만시설 부지로 사용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총 108개월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전에서 양질의 해상공사 실적, 우수한 기술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주는 또 2014년부터 현대건설이 수

행 중인 투아스 핑거 1 매립공사에 이은 대형 해상 매립공사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국토의 7%에 달하는 매립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해상 분야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점하고 있다”며 “향후 싱가포르 국토개발 장기계획에 따라 유사한 프로젝트가 지속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수주로 해상 매립공사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1981년 풀라우 테콩 매립공사로 싱가포르에 처음 진출한 이래 파시르 판장 터미널 3/4단계 공사,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공사 등 총 84건, 138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현재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에서 준설 및 매립 공사를 포함해 토목·건축 공사 등 총 10개 현장, 26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Hillstate River City on sale in March

Hillstate River City, located in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will be put on the market in March.

Hillstate River City consists of 52 apartment buildings of 21 floors above ground and two basement levels with a total of 3,510 units. The medium-to-small-sized units, highly preferred by consumers, account for about 83 percent of total units. Residents-to-be can select various types of units according to their liking.

Hillstate River City is located in the Hyangsan District developed as part of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The



Hyangsan District, bigger than the Wangsimni New Town, is expected to accommodate apartment houses as

well as detached dwellings, elementary schools, roads and parks, and the Gimpo Urban Railway will open in

November this year. In addition, the district has good access to Seoul, the country's capital, via expressways including Gimpo Hangang-ro and Gimpo-daero.

All units of the new Hillstate face the south, and approximately 70 percent of them were designed as flat-type apartment houses to provide abundant cross ventilation. Our company aims to enhance safety and convenience for Hillstate residents by offering earthquake-resistant designs and cutting-edge convenience systems.

한강을 품은 한걸음 서울생활권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3월 말 분양

우리 회사가 3월 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는 지하 2층~지상 21층, 52개 동 총 3510세대(1단지 1568세대/2단지 1942세대) 규모다. 단지는 ▶68㎡ 740세대 ▶76㎡ 724세대 ▶84㎡ 1415세

대 ▶102㎡ 441세대 ▶108㎡ 18세대 ▶테라스/펜트/복층형 172세대로 구성됐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 비율이 약 83%에 달하고, 평면 타입(총 41개)이 다양해 아파트 타입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리버시티가 들어서

는 김포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 규모는 39만5058㎡에 달한다. 서울의 왕십리뉴타운보다 큰 규모다. 향산지구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초등학교·도로·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11월 김포도시철도의 개통도 예정돼 있다. 또한 김포한강로와 김포대로

가 인접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도 좋다. 우리 회사는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의 전 세대를 남향형으로 배치하고, 전체 세대의 약 70%를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한 안전 설계와 최첨단 편의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Hyundai E&C joins hands with KT for A.I. apartment business cooperation

Hyundai E&C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KT to build artificial intelligence apartments controlled by voice recognition in the head office, Gye-dong, Seoul, on February 6.

Korea's primary builder and the

country's largest telephone company agreed to allow all residents of Hillstate apartments to have access to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including the "Voice Home" platform developed by Hyundai E&C and KT's GiGAGenie platform. In the near future, Hill-

state residents will be able to control key built-in appliances such as lights, and heating and gas appliances as well as IoT home appliances including TVs, air purifiers and robotic vacuum cleaners through the Voice Home, the voice recognition artificial intelli-

gence system installed in their homes. Moreover, they will enjoy automatic access to a variety of content offered by KT such as information services on traffic, weather and TV news, and connected services on music, reservations and English education content.

현대건설, KT와 손잡고 '인공지능 아파트' 시대 연다

현대건설이 KT와 신개념 음성인식 인공지능 아파트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월 6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이영철 전무, KT 이필재 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사는 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이스홈' 플랫폼과 KT의 '기가지니'(음성인식) 플랫폼 연동 서비스를 힐스테이트 입주 고객에게 지속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입주 고객들은 세대 곳곳에 설치된 음성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보이스홈'(음성인식 월패

드·스피커·스마트 거치대)을 통해 음성 명령만으로 빌트인 기기(조명·난방·가스 등)와 IoT 가전제품(TV·공기청정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KT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교통정보, 날씨 등)와 생활서비스(음악, 예약 등)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반기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인공지능 스마트홈 시스템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통신사, 포털사 등 타 산업과의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개통

우리 회사가 시공한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가 지난 1월 30일 개통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과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을 잇는 총 연장 10.2km(터널 4개소, 교량 7개소, 교차로 2개소)의 국도 신설 공사다. 우리 회사는 2007년 5월 첫 삽을 뜬 후 130개월 만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특히 평창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당초 예상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 개통해 관광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장 관계자는 "터널과 교량이 산악 지역을 통과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공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인 개통을 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통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술교육원-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MOU 체결

기술교육원이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와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월 20일 진행된 협약식은 우리 회사 채병석 기술교육원장과 슈나이더 일렉트릭사의 디에고 아르세스(Diego Areces) 동북아시아 허브 리더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빌딩 전문 기술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협의

했다. 향후 기술교육원생들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국내 현장 견학, 최신 기자재 실습 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전략적 기술 제휴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기술교육원이 첨단 건설산업 기술교육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교육원은 3월에 개강하는 9개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활발히 모집 중이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 신형 싼타페 출시



현대자동차가 2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현대자동차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싼타페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12년 출시된 3세대 싼타페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4세대 신형 싼타페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완성까지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완성된 '인간 중심의 신개념 중형 SUV'다.

특히 신형 싼타페는 사용자를 세심히 배려하는 최근의 캠퍼(Calm-Tech)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며 철저히 사용자 경험(UX·User Experience) 관점에서 개발됐다. 또한 디자인에서부터 공간 활용성, 주행성능, 안전·편의 사양에 이르기까지 차량 전반에 걸쳐 목표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혁신적인 상품성을 갖췄다.

현대종합설계, 2018년 신입사원 설맞이 사회공헌 활동



현대종합설계 2018년 신입사원들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인근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회사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대종합설계 신입사원 8명은 2월 9일 창신동 일대의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지원하고 어르신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

봉사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부서 소식

힐스테이트 팽택 1차 준공



힐스테이트 팽택 1차 현장이 2015년 9월 착공 이래 29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준공했다.

경기도 팽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현장은 10개 동 822세대 규모로,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2800여 세대(2차 1443세대, 3차 542세대)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 집중된 팽택에 위치해 착공 초기부터 자재·인력 공급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 직원이 노력해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었다"며 "이 여세를 몰아 오는 4월 말 준공 예정인 2차 현장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A chance to show the world Korea's cultural dexterity

An array of cultural programs are being held across Pyeongchang and Gangneung, in Gangwon province, in tandem with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hich kicked off on Feb. 9. "We are taking this opportunity to show the world Korea's diverse and creative culture," said an official from the culture ministry. The Korea JoongAng Daily picked out 6 events that are worth a visit. Tickets and more details of all the programs are available at the official homepage of the PyeongChang Culture Olympiad at www.culture2018.com/en/ and its blog at 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

Performance: Scent of Thousand's Year

Until Feb. 24 at the Gangneung-Wonju University's Haeram Culture Hall, a non-verbal performance showcasing Korea's traditional dance, music and cutting-edge technology, shown as a part of Gangwon province's Dano Festival, will be staged daily. The festival has been recogniz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performance starts at 5 p.m. on weekdays and at 2 p.m. and 5 p.m. on weekends. Tickets cost 10,000 won.

Ballet: Heo Nan Seol Heon - Su Wol Kyung Hwa

The Korean National Ballet will be staging a modern ballet performance inspired by Joseon Dynasty (1392-1910) era female poet Heo Nan Seol Heon's life and her two major poems. The performance received great reviews from critics. The show starts at 7:30 p.m. at the Gangneung Arts Center. The performance is free, however, seats must be reserved in advance via the Culture Olympiad's official website.

K-pop World Festa

On Feb. 24, K-pop groups including Super Junior,



1 The Korean National Ballet will be staging a modern ballet performance on Feb. 27. 2 A full moon-shaped installation on Gyeongpo Lake in Gangneung. 3 At the Culture-ICT Pavilion, 10 notable works by renowned Korean video artist Nam June Paik are on display.

BIA4, Laboum, TRCNG, KARD, and B.A.P will appear on stage. The concert starts at 6 p.m. The show is free and up to two tickets can be reserved.

Light Art Show: Moonlight Lake

Every night until Feb. 25, a sculpture of a full moon installed on the Gyeongpo Lake in Gangneung will be lit up for onlookers to enjoy. According to the organizers, the sculpture is a media art installation created in appreciation of the moon and the many tales about it. The moon illuminates after sunset and stays on until 10 p.m. Meanwhile, a light show will be held for 10 minutes every hour, from 7 p.m. to 10 p.m.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18: The Dictionary of Evil

At the Gangneung Green City Experience Center,



which is located about a 10-minute-drive from the Gangneung KTX Station, visitors can enjoy artwork presented by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including big names like the Swiss artist Thomas Hirschhorn. The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continues through March 18. Admission is free.

Light PyeongChang - Nam June Paik and K-Art

The works of highly-acclaimed Korean video artist Nam June Paik (1932-2006) are on display at the PyeongChang Olympic Plaza's Culture-ICT pavilion until the end of the Olympic Games and then again during the Paralympic Games. Entrance is free if you have tickets to the PyeongChang Olympic Plaza or an event on the day you visit.

'Iron Man' wins Asia's first medal in sliding

Asia's first-ever medal in a sliding event went to Yun Sung-bin on Feb. 16, who won gold in skeleton at the Olympic Sliding Centre in Pyeongchang, Gangwon. Yun's chances of winning gold were already strong as he had broken two world records in the first two heats of the men's skeleton race.

Martins Dukurs of Latvia, who was No. 1 for eight consecutive seasons, was his only real rival. In the first run, Yun recorded a time of 50.28 seconds, beating the track record set by Dukurs a year ago. He broke his own track record in the second heat, recording a time of 50.07 sec-

onds. Not only did he set a new track record, he also set a new start record - 4.61 seconds. But Yun wasn't the only Korean who broke a personal best at PyeongChang. Kim Ji-soo, the other Korean racer, broke his personal best clocking 50.51 seconds at the final run.



Hyundai Tucson Ranked Most Dependable Small SUV By J.D. Power

Hyundai's Tucson received the distinct honor of most dependable small SUV by J.D. Power in their 2018 Vehicle Dependability Study (VDS). Released Feb.19, the annual Vehicle Dependability Study shows Tucson ranked highest in its class, beating out leading competitors. The Tucson offers sporty styling, outstanding efficiency and cutting-edge safety technologies. Overall, Hyundai scored an impressive sixth-place finish in the



entire industry and third-best in the non-premium category, lowering its PP100 by nine problems. The Hyundai Santa Fe also ranked second in its segment.

Three trophies for Kia at the 2018 iF design Awards

Kia Motors has won three prestigious 2018 'iF design' Awards, reinforcing the brand's reputation for striking car design. The new Kia Stinger fastback sports sedan, Stonic compact crossover and Picanto city car were each awarded prizes in the 'Product Design' category. 2018 marks the second consecutive year in which Kia has won three iF awards, and the ninth consecutive year the company has received

an iF award. This latest hat-trick of awards brings the manufacturer's total number of iF design prizes to 15. The official presentation ceremony for the awards will take place on March 9 at BMW Welt in Munich.



Korean Lessons

Quick guide to 한글(Hangeul) ①

The Korean writing system, Hangeul, is the only writing system in the world in which the name of its creator and founding date are known. King Sejong the Great of the Joseon Dynasty developed Hangeul in the 15th century with the help of scholars from the royal research institute, Jiphyeonjeon. King Sejong despised using Hanja, or Chinese characters, to write in Korean, so he developed a system so that all people could read and write, not just those in higher social classes.

Hangeul, therefore, was invented for anyone to logically understand and easily learn. Some people say that it takes one day for non-native speakers to master reading Hangeul. Once you have mastered it, you will be able to read Korean words.

In Hangeul, there are 24 basic letters and digraphs.

*digraph: pair of characters used to make one sound (phoneme)

Of the letters, 14 are consonants(자음) and five of them are doubled to form five tense consonants(쌍자음).

Consonants

Basic		Tense	
ㄱ	g/k g/k	ㄲ	kk k'
ㄴ	n n		
ㄷ	d/t d/t	ㄸ	tt t'
ㄹ	r/l r/l		
ㅁ	m m		
ㅂ	b/p b/p	ㅃ	pp p'
ㅅ	g/k g/k	ㅆ	ss s'
ㅇ	s s/c		
ㅇ	ng ŋ	ㅇ	jj c'
ㅈ	j dz/tc		
ㅊ	k k/k'		
ㅌ	t t/t'		
ㅍ	p p/p'		
ㅎ	H h		

When it comes to vowels(모음), there are 10 basic letters, 11 additional letters can be created by combining certain basic letters to make a total of 21 vowels. Of the vowels, eight are single pure vowels, also known as monophthongs(단모음), and 13 are diphthongs(이중모음), or two vowel sounds joined into one syllable which creates one sound.

Vowels

Monophthongs	Diphthongs		
ㅏ a/a:	ㅑ ya ja	ㅓ wa wa	
ㅓ eo o/ə	ㅕ yeo jŋ	ㅗ wo w/w:	
ㅗ o/o:	ㅛ yo jo		
ㅜ u/u:	ㅠ yu ju		
ㅡ eu i/u:			
ㅣ i i:			
ㅐ ae e/ɛ:	ㅒ yae jɛ	ㅖ wae we	
ㅔ e e/e:	ㅒ ye jɛ	ㅖ we we	
		ㅚ oe we	
		ㅜ wi wi	
		ㅡ ui ii	

* When saying a monophthong, you are producing one pure vowel with no tongue movement.

* When saying a diphthong, you are producing one sound by saying two vowels. Therefore, your tongue and mouth move quickly from one letter to another (glide or slide) to create a single sound.

* ㅚ and ㅜ were pronounced as single pure vowels (monophthongs) in the past; however, presently, these vowels are produced as two vowels gradually gliding into one another to create one sound (diphthong).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The 20th Happy Move Global Youth Volunteers Camp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20기 봉사활동 “인도네시아 찰레본에 ‘삶’을 선물하다”

함께 더 멀리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20기 인도네시아 지역 봉사단원들이 1월 29일부터 2월 10일 까지 11박13일의 현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 찰레본II 화력발전소 현장 인근 지역에 파견된 79명의 청년봉사단은 건축, 교육 봉사 및 문화 교류를 마치고 돌아왔다.
글=박현희 / 사진=에피무브 20기 현대건설 홍보단 주태(명지대), 박은경(숭실대), 안지예(중앙대)



Hyundai E&C successfully completes volunteering activities by joining forces with the Cirebon II Thermal Power Plant project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이하 ‘해피무브’)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으로 그룹사와 NGO가 협력해 기획·진행하는 글로벌 봉사활동이다. 2008년 창간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이번 20기 봉사단은 올 1~2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중국 등 총 4개 국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돕고 현지 주민 및 대학생과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회사는 1973년 자고라위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35개 공사(약 38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활동 지역은 우리 회사 찰레본 II 화력발전소 현장이 위치한 찰레본(Cirebon)으로 정했다. 해피무브는 찰레본 내 3개 마을을 방문해 빈곤가구 8가구 신축, 초등학교 화장실 4개 건립, 벽화 작업, 어린이 교육 지원, 한국문화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교육 봉사도 준비했다. 2월 3일 오전, 현지 초등학교 두 곳을 방문해 교육 봉사를 진행한 봉사단원들은 에코백·소원인형·한글 이름 배지 만들기 등을 선보이며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해피타트 관계자는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다. 해피무브와의 만남은 아이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무브가 가장 손꼽아 기다린 것은 2월 8일에 있었던 현장식이였다. 현장식은 총 1, 2부로 진행했다. 찰레본 군수 및 마을 이장들의 축사와 찰레본 II 화력발전소 하업 현장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1부는 가옥 현장식과 수료증 수여식 등 해피무브의 공로를 치하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2부는 문화 교류 시간이었다. 해피무브는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해 온 부채춤, 태권무, 풍물놀이 등 한국의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현지 주민들도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화답했다. 현장식을 지켜본 찰레본 II 화력발전소 현장 배성훈 과장은 “해피무브의 공연에 모든 사람이 연신 박수를 치고 ‘Bagus(최고!)’를 외쳤다. 우리 현장은 거주 지역과 밀접해 있어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해피무브 활동은 앞으로의 현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찰레본 지역 사람들과 친한 교류를 마치고 돌아온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이 활동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해피무브에게도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따뜻한 마음으로 지은 8채의 작은 집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1월 30일 해피무브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찰레본 II 화력발전소 현장 사무소였다. 해피무브는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직원들에게 찰레본 주민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최병길 공무팀장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200여km 떨어진 찰레본은 도로와 건물 시설이 열악하다. 아이들이 악취가 풍기는 곳에서 맨발로 뛰다니는 경우가 많고 집과 위생시설이 부족해 거리에서 생활한다. 이번 해피무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활동은 마을에 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노력 봉사 중심으로 진행했다. ‘일주일 만에 작은 가옥 8채 짓기’라는 미션을 받은 해피무브는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세대로별 10명씩 팀을 나눴다. 또 땅을 일구는 팀, 철근을 자른 후 고리를 만드는 팀, 토대를 만드는 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이어졌다. 기둥 골조를 세우거나 거푸집을 만들고, 정화조를 파는 일 등은 모두에게 생소했다.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마저 “군대 시절만큼 힘들다”고 말했다고. 일주일간 땀 흘린 끝에 8가구가 편안하게 살 집을 완성했다. 해피무브 정원연(영남대) 학생은 “처음에는 안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 했다. 해피무브 동료들과 함께 차근차근 공사를 진행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해 준 동료들이 자랑스럽고 이 작은 집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수와 감탄이 끊이지 않았던 현장식 현장
건축 봉사단으로도 바쁜 일정이었지만, 해피무브는 현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Mini Interview

<p>대학생 해피무브 윤원수(인하공전대)</p> <p>“저에게 해피무브란 복숭아입니다. 삶에서 방향성을 잃었을 때 해피무브에서 배운 가치와 경험이 큰 자원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해외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을 보면 큰 감명을 받았습니. 인도네시아 찰레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자랑삼아 앞으로의 제 삶에 잊지 않게 꾸러나가고 싶습니다”</p>	<p>대학생 해피무브 여은아(인천대)</p> <p>“건축 봉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지만, 가장 기다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 데다 팀원들과 끈끈한 우정도 다질 수 있었거든요. 가족을 뵙는 것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 인도네시아 찰레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자랑삼아 앞으로의 제 삶에 잊지 않게 꾸러나가고 싶습니다”</p>	<p>대학생 해피무브 최실아(대구교육대)</p> <p>“인도네시아 초등학교생들에게 제가치기를 가르쳤는데,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들었던 저와 달리 아이들은 사뭇 제 말 한디. 행동 하나에 집중해서 완성을 해의 기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활동은 글로벌 청년으로서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p>
--	---	--

Interview

‘일도 CSR도 열정적으로!’ 찰레본II 화력발전소 현장 직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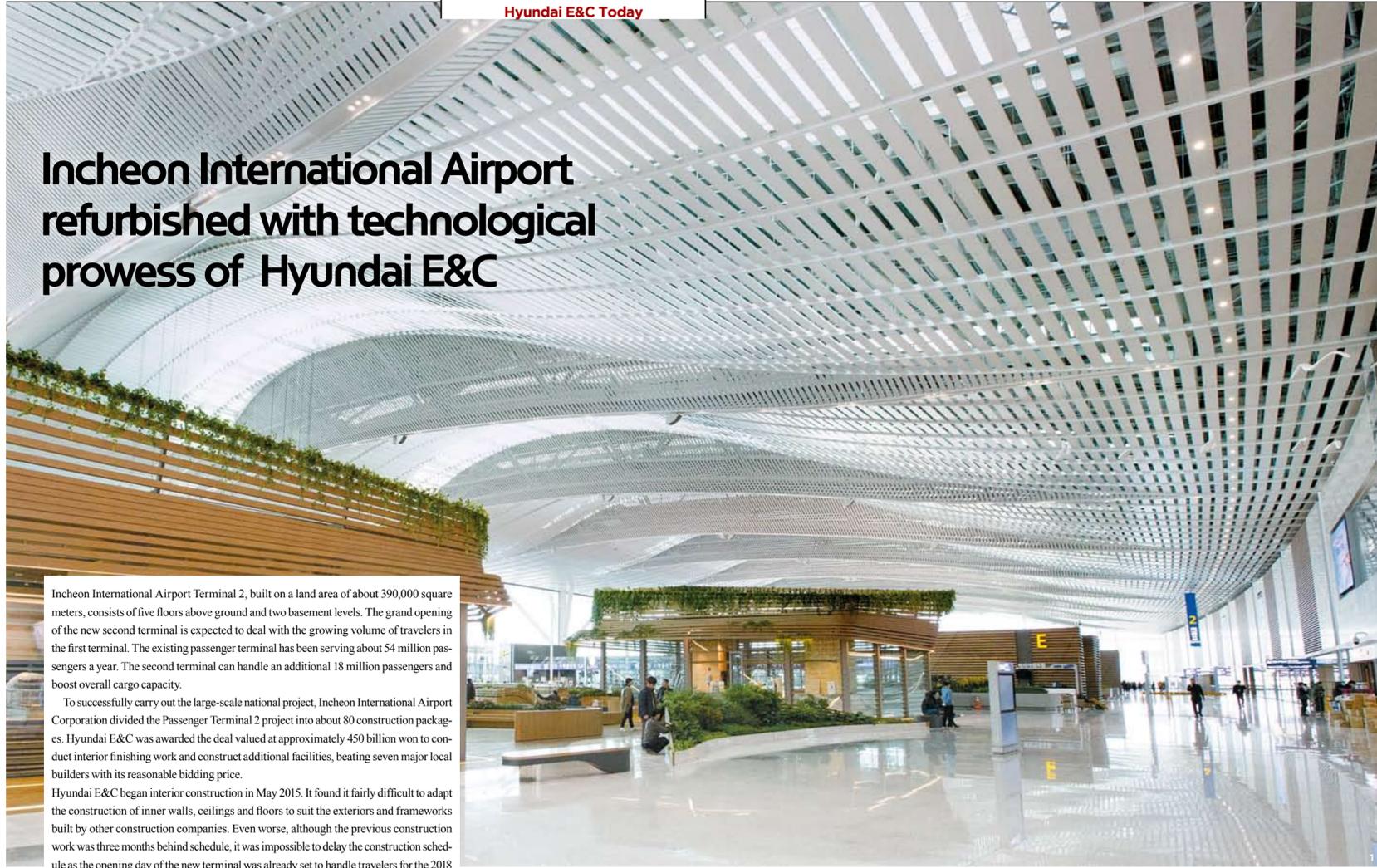
이번 해피무브가 특별한 점은 봉사활동의 기획과 활동에 현장이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회사 찰레본II 화력발전소 현장은 본사 CSR팀과 함께 1년6개월 전부터 해피무브 인도네시아 활동을 준비했다. 현장 직원들이 직접 전해주는 해피무브 봉사활동 비하인드 스토리.

- Q 이번 해피무브 활동 지역이 인도네시아 찰레본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김태와 관리팀장(이하 ‘김 팀장’) 석탄화력발전소는 탈황 설비와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춰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찰레본 지역 주민의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현장은 마을 주민의 거주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2억6000만 명)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Q 현장 직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활동 소감도 궁금합니다.**
김 팀장 해피무브와 함께 벽화 그리기를 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짧은 패기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 저 역시 찰레본 마을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기 현장이다 보니 해피무브에게 우리 회사가 해외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습니.
-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김 대리 단연 해피무브 공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 마나린 타국 땅에 울려 퍼진 아리랑과 선이 고왔던 부채춤, 한국인의 강인한 모습과 흥을 보여준 태권무와 풍물놀이 등 하나같이 흠뻑 볼 수 없는 공연들이었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갈채와 여러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
- Q 현장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CSR 활동이 있나요?**
김 팀장 당 현장은 공사 초기부터 인도네시아 찰레본 지역에 다양한 CS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

현장 인근 마을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취약 계층이 사는 지역입니다. 가족이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곳인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큰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 현장 직원들은 마을 주민을 위해 물과 라면, 청소용품들을 보충하고 수해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리 홍수가 났을 때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긴급 복구 지원 및 구호 활동을 펼쳤죠. 이 활동은 봉사에도 보탬이 바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해 정기적으로 마을의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직원 모두가 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현장의 계획과 각오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김 대리 우리 현장은 당면한 과제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리팀 소속으로서 현장 직원들이 공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의 지원 방안을 꾸준히 생각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
김 팀장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에게 지면을 빌려 다시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덕분에 현장 분위기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현장은 지난해 11월 정식 NTP(Notice to Proceed)가 발급돼 이제 막 정상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현장팀 및 당 프로젝트의 서울 사무소 소속 임직원 모두가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efurbished with technological prowess of Hyundai E&C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built on a land area of about 390,000 square meters, consists of five floors above ground and two basement levels. The grand opening of the new second terminal is expected to deal with the growing volume of travelers in the first terminal. The existing passenger terminal has been serving about 54 million passengers a year. The second terminal can handle an additional 18 million passengers and boost overall cargo capacity.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large-scale national projec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divided the Passenger Terminal 2 project into about 80 construction packages. Hyundai E&C was awarded the deal valued at approximately 450 billion won to conduct interior finishing work and construct additional facilities, beating seven major local builders with its reasonable bidding price.

Hyundai E&C began interior construction in May 2015. It found it fairly difficult to adapt the construction of inner walls, ceilings and floors to suit the exteriors and frameworks built by other construction companies. Even worse, although the previous construction work was three months behind schedule, it was impossible to delay the construction schedule as the opening day of the new terminal was already set to handle travelers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o solve this problem, starting in September 2015, Hyundai E&C performed almost all construction procedures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the builder put in as many as 2,300 workers per day around November 2016.

The new Terminal 2 pursued three concepts including "eco," "art" and "smart" from the design stage. In line with this, about 95 percent of indoor lights were designed to use energy-efficient LED light bulbs. For the landscaping area in the new second terminal, about three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first terminal, the construction company made the best use of 25,000 trees and 734,000 shrubs.

The new passenger terminal is often called the "art-port" as artworks are displayed all over the airport. Among them, the grand ceiling at the ticketing hall reveals the most compelling artistic beauty. The main ceiling is made up of thousands of small louvers crossing the main structures, creating a beautifully curved ladder shape. In addition, the new terminal has a high ceiling height: The ceilings are 10 meters high on average, and the height from the floor and to the highest point of the ceiling reaches 50 meters. For the high place work to be done, Hyundai E&C installed large-scale scaffolds and complied with safety-related regulations in a thorough manner.

The Terminal 2 project was considered a series of challenges in that it was a national project of utmost importance and involved unique characteristics of an airport with a large volume of space. For example, it took two hours each for workers to enter and leave the construction site because the inside of the airport was designated as a security area after the new terminal started test operation.

Thanks to technological expertise and construction capabilities amassed from Hyundai E&C's prior involvement in Al Ain International Airport in Abu Dhabi, UAE, 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 in Bali, Indonesia, and Changi Airport in Singapore, the second passenger terminal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ll serve as a new landmark reflecting the inherent dynamism of Korea.



수천 개의 루버로 이뤄진 곡선형 천장.



Technology

3D모델링, 50m 고소작업으로 곡선형 천장의 '아트포트' 구현
Build "art-port" with a curved ceiling through 3D modeling and high place work

Ownership

심야공사 및 돌린 작업으로 공기 3개월 단축
Reduce construction schedule by three months thanks to midnight working and speedy construction

Pride

평창 동계올림픽의 제1 관문, 인천국제공항의 변신
Transfor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to a brand new gateway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 1 예술적 감각을 드러내는 곡선형 천장과 다양한 조경으로 '아트' 공항을 구현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2 에어사이드 내의 노트카드에 근사한 조경 공간이 들어섰다. 3 터렛팅 홀에는 조경과 어울리는 연못도 조성돼 있다.
- 4 제2여객터미널의 천장은 최고 50m에 이른다. 나무와 철재, 유리, 콘크리트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독특한 건축 양식도 눈에 띈다.
- 5 천장 시공 당시 제작한 대규모 가설 비계.

Interview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현장을 이끈 '만능 해결사' 현장소장 강도성 부장

선행 공정이 늦어져 현장의 작업기간은 짧아지고 준공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강도성 부장. 강도성 부장은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 및 협력사와 끊임없이 소통했다. 협력사를 다독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공사하고 발주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 공기 내 준공이라는 열매를 맺고 발주처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모든 현장이 힘들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정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기한 내에 완수하기 위해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묵묵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작업까지 힘내 주십시오. 파이팅!"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현장의 '나플레옹' 공사파트장 고창희 부장

제2여객터미널 공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타 패키지 시공사가 자사 보수작업을 위해 우리 회사의 마감 작업을 해체하는가 하면, 타 시공사와 작업 구간이 겹쳐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국내 어디에도 없는 공사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고창희 부장은 이번 현장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업무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2여객터미널 현장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품질 평가에서도 호평을 받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안겨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현대건설이기에 가능했던 프로젝트 아닐까요?"



120가지 조형기구 승인작업 담당, '노력과 끈기의 아이리온' 전기공무 채승길 차장

제2여객터미널 내에는 8만8000개의 조형이 설치돼 있다. 제2여객터미널 현장은 실제로 조형이 달릴 공간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테스트하는 작업(Mock up) 과정을 거쳐 조형을 설치했다. 전기 공무를 담당한 채승길 차장은 출고기 높이가 유지 보수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부속품 하나의 품질까지도 꼼꼼히 신경 썼다.

"한 번의 목업 과정으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종류의 조형을 준비하고, 공간을 바꿔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덕분에 조형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완공이 된 지금 현장을 둘러보면 지난 노력들이 생각나 뿌듯하고, 아이들에게 아바카 한 일부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보다 꼼꼼할 수 없다, 품질관리의 '완벽주의자' 품질파트장 오성근 부장

화강석 13만5000㎡, 인조 대리석 4만2000㎡, 알루미늄 패널 1만 9000㎡...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현장을 쓰인 자재물량이다. 자재의 사용 여부를 승인받고 주문 및 검수, 시연, 시공 후 추적관리까지 담당한 이가 바로 오성근 부장. 마감 보수작업 중인 2월 현재까지도 그의 '완벽주의'는 계속되고 있다.

"워너 중요한 프로젝트라 자재 하나하나의 품질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일반 건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규격의 커터판 자재가 많이 관리와 시공이 쉽지 않았습니. 수급에도 난항을 겪어 중국에 위치한 공장에 직접 연락했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마지막 보수작업까지 품질이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현장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화려하게 개장했다. 제2여객터미널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공항의 명성 덕분에 개장 전부터 많은 이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 회사는 제2여객터미널의 80여 패키지 공사 중 내부 마감 및 부대설비 공사를 담당해 각 패키지 간의 공사 간섭과 짧은 공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완성했다.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보수작업에 한창인 현장을 찾았다. 글=김보나 / 사진=이승기



인천국제공항, 현대건설의 기술력으로 새 단장을 마칩다

1일 최대 작업인원 2300명, 총력을 다해 공기 내 완공

관광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나라의 '얼굴' 공항. 세계 각국의 수많은 공항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은 넓고 쾌적한 시설 덕분에 2001년 개장 이후부터 꾸준히 입소문을 탔다. 그리고 2018년, 그 명성을 잇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제2여객터미널)이 새롭게 오픈했다. 제2여객터미널은 지하 2층~지상 5층, 전체 면적 약 39만㎡(약 12만 평)를 자랑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제1여객터미널의 혼잡함을 덜 수 있게 됐다. 기존 1터미널의 수용인원 540만 명에 약 1800만 명의 여객을 추가로 수용 가능하며 화물처리 능력도 증진됐다.

제2여객터미널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시공사 선정부터 까다로웠다. 발주처인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공사를 무려 약 80개 공종으로 나누었다. 그중에서도 우리 회사가 맡은 내부 마감 및 부대설비 공사는 계약가가 약 4500억원에 이른다. 입찰에는 우리 회사를 포함해 국내 대형업체 8개사가 참여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회사가 가격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 수주를 따냈다.

우리 회사가 내부 공사에 착수한 것은 2015년 5월부터다. 타사가 시공한 외장과 골조에 건물 내벽과 천장, 바닥을 이어 시공하는 것은 일반 공사보다 훨씬 난해한 작업이었다. 무엇보다 선형 공정이 3개월 정도 미뤄져 공기가 촉박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장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공기 연장은 불가능했다. 현장은 초유의 강수를 두었다. 2015년 9월부터 벽체와 금속공사, 기계 및 전기공사, 기타 조경공사 등 거의 모든 공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공사가 피크를 이룬 2016년 11월에는 현장 직원만 1000여 명, 기능공을 포함한 전체 작업 인원이 무려 하루 2300명에 달했다. 준공을 앞둔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심야공사를 포함한 집중 돌관공사를 수행했다.

에코(Eco), 아트(Art) 공항을 구현하다

제2여객터미널은 설계 단계부터 '에코' '아트' '스마트' 공항이라는 콘셉트를 지켰다. 유례가 없는 대공간 프로젝트라는 점과 촉박한 공기 등 어려운 작업 환경 속에서도 우리 회사는 인테리어에 '에코' '아트' 콘셉트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력을 총동원했다.

먼저, 제2여객터미널 실내 조명의 95%가량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제2여객터미널의 조명 면적은 약 78만 6000㎡로, 제1여객터미널 대비 약

세배 정도 넓다. 조경팀은 실내 환경에서 관리가 수월하고 보기에도 좋은 수종을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조경공사에 들어간 교목만 약 2만5000주, 관목은 73만4000주 나 된다. 터렛팅 홀 곳곳에서도 식물을 볼 수 있지만 정점은 에어사이드 내 노드카드이다. 마치 실내 식물원에 온 듯 초록이 펼쳐진다.

제2여객터미널은 곳곳에 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어 '아트포트'라 불리기도 한다.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규모로 압도적인 예술 감각을 드러내는 곳은 바로 터렛팅 홀의 천장이다. 천장은 수천 개의 루버로 이뤄졌는데, 큰 줄기의 구조체가 사에 짧은 루버들이 가로로 교차돼 사다리 모양으로 곡선을 이룬다. 각각의 루버는 저마다 각도가 다르다. 현장은 네 번의 3D모델링과 샘플시공을 거치고, 루버의 각도가 모델링 결과와 오차가 없도록 세심하게 공사에 임했다. 또한 천장은 높이가 기본 10m, 최고 50m에 이를 정도로 층고가 높다. 이 때문에 현장은 볼 비계, 이동식 비계 등 여러가지 타입의 대규모 가설 비계를 제작해 난이도 높은 고소작업을 이수했다. 고소작업인 만큼 주변 작업을 통제하고 2중 안전장치를 하는 등 안전 규정을 빈틈없이 따랐다.

화강석 마감재 13만5000㎡, 조형기구 8만8000개... 역작을 완성하다

현장 직원들에게 제2여객터미널 공사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일반 건축물이 아닌 대공간, 국가 사업 중에서도 공명이라는 건물의 특수성 때문이다. 준공을 앞두고 공명이 테스트 운영에 들어간 이후에는 공항 내부가 보안구역으로 지정돼 직원들의 현장 출입과 퇴장에만 각각 두 시간씩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의 다양한 마감 공사를 최고의 품질로 마무리했다. 공사팀 고창희 부장은 "국내 모든 종류의 건축 마감 자재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형기구 또한 무려 120종류, 8만8000개나 사용됐다. 공사 완료 후에는 품질 점검을 통해 약간의 이색이 발생해 자재 또는 각도가 틀어진 곡선 및 곡면 자재를 전부 발견하고 개선했다.

UAE 아부다비 알아인 국제공항,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한 이력이 있는 우리 회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현장에서 그간 쌓아온 공항 건설 기술력과 공사 수행 능력을 마음껏 뽐냈다. 제2여객터미널 완공은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든' 우리 회사의 쾌거다. 그 덕분에 제2여객터미널은 대한민국의 다이나믹함을 드러내는 새로운 명소로 태어났다.



1 엔비디아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다. 2,3 엔비디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에 지은 신사옥. 쟁선 황 CEO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다.



엔비디아(NVIDIA),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다

해외 기업 탐방 ①엔비디아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 '엔비디아(NVIDIA)'는 전 세계 GPU 시장의 70~80%를 점한 글로벌 기업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가상현실(VR)과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보유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글·사진=손재권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혁신의 전진기지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우버, 넷플릭스 등이 태어났다.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 특유의 자유로운 문화와 세계 곳곳에서 건너온 이민자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의 치열한 경쟁이 함께 섞여 있는 곳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혁신적인 아이폰이나 구글, 우버 등 '제품과 서비스'만이 아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혁신은 바로 '신 사옥'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샌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NVIDIA) 신사옥을 주목하고 있다. 컴퓨터그래픽 회사로 출발한 엔비디아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기업으로 손꼽힌다. 엔비디아는 GPU(Graphic Processing Unit)라는 컴퓨터용 그래픽처리장치와 멀티미디어 장치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에서 AI, IoT,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변신했다. 그래픽 칩 업체에서 인공지능 시대 최고 기업으로 거듭난 엔비디아의 '사옥'을 보면 이 회사의 전략과 미래가 보인다.

최고경영자 철학 담긴 신사옥

'엔비디아 캠퍼스'로 불리는 신사옥은 쟁선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2007년부터 10년간 구상해온 생각의 결과물이다. 대지면적 4만8600㎡(약 1만5000평)에 엔비디아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결집해 지난해 11월 신사옥을 완공했다.

사옥 외관은 파충류 껍질 모양 같다고 해서 '렙타일(Reptile)'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 도쿄돔의 두배 정도 되는 돔 건물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 돔 사옥이기도 하다.

엔비디아 신사옥은 사무실을 거대한 '협업 운동장'처럼 지었다. 사옥 내부는 육각형 사옥 에지(edge)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을 마련했고, 사옥 가운데에는 소설 공간(심장(heart)이라 명명)이 있어서 다른 부서 직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내 커피숍과 회의실이 사옥 한가운데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내 어디를 가더라도 한가운데 조성된 이 심장을 지나가야 한다. '협업'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철학을 대변하고 있다. 엔비디아 캠퍼스는 쟁선 황 CEO의 철학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이 건물을 설계해 일약 건축 설계 스타로 떠오른 쟁선 황의 하오 코(Hao Ko) 수석건축가는 "엔비디아는 우연한 발견(Serendipity)을 추구했다. 부서가 다르더라도 언제든 만나서 얘기하고 그 가운데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그런 철학으로 사옥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가상현실 활용해 건물 설계

엔비디아 신사옥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가상현실을 실제 건축 설계에 적용한 최초의 건물이다. 설계 단계부터 자체 개발한 아이레이 가상현실(VR) 시스템을 활용해 건물을 설계했다.

이 사옥의 가장 큰 '예술'은 건물 설계도 있지만 사옥 내 거의 모든 자리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신경 쓰고 예측했다는 점이다. 최고 수준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빛의 방향이나 강도에 따라 건물 내장재 질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실제 컴퓨터로 245개 채광장을 설계했다. 햇빛이 강렬한 7월의 정오와 구름이 잔뜩 낀 11월 오후의 사옥 내 일조량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까 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소프트웨어(SW) '아이레이' 덕분이다. 렌더링이란 2차원 영상에서 광원·색상 등의 정보를 합쳐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기술인데, 아이레이를 통해 렌더링을 하면 특정 물체들의 데이터를 입력만 해도 실물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엔비디아는 사옥 건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제품화할 예정이다. 사옥이 곧 제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 설계의 큰 혁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건물을 설계한 후 실제 건물을 짓게 되면 수시로 바뀌는 도면으로 인해 발주처(건축주)와 설계사무소 간 다툼이 많았다. 이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전가됐다. 그러나 VR 설계는 이 같은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가상으로 본 도면이 실제 건물과 유사성을 넘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 될 것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미래형 기업이다. 특히 자동차(완성차) 회사들이 하나둘씩 모빌리티 회사로 변신을 선언하는 가운데 거의 모든 회사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특히 엔비디아 GPU는 컴퓨터에서 시각적 효과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칩이다. 고도로 복잡한 연산에서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보다 성능이 낮지만 다량의 데이터, 특히 이미지를 단시간 내 처리하는 데 장점이 있다. IoT, 인공지능의 진화로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GPU 수요가 급증했고 엔비디아는 최고 스타 기업으로 떠올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붐도 GPU의 가치를 높였으며 막대한 데이터 연산이 필요한 자율주행차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업이 됐다.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8에서 쟁선 황 CEO가 발표한 내용은 이 회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쟁선 황 CEO는 "미래의 자동차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의 결정체다. 딥러닝, 컴퓨터 비전, 고성능 컴퓨팅을 고도의 효율성으로 처리하는 엔비디아 칩(자비에)이 그 출발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에는 해마다 1억 대의 자동차, 수백만 대의 로보택시(robotaxi), 수십만 대의 트럭이 생산될 것이며 이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을 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는 "복잡한 현실에서 안전하게 주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자동차, 택시, 모바일,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트럭 운송 등 사람과 화물의 이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며 우리는 현재 큰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엔비디아는 지난 3년간 매출은 평균 19% 상승했고 이익은 무려 56%씩 증가했다. 불과 2년 전 30달러 근처였던 주가는 200달러를 가볍히 돌파했다. 시가총액도 약 1477억 달러를 기록하며 IBM과 맥도널드에 근접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ries)는 "IBM은 대형 컴퓨터로 1950년대를 지배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은 PC 시대를 열었으며 애플과 구글은 휴대전화 보급을 통해 시장을 평정했다"며 "지금은 차세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결국엔 엔비디아가 최종 수혜자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의 상징' 엔비디아

CEO 겸 창업자 쟁선 황(대만 출신 이민자)
설립연도 1993년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직원수 1만 명
매출 69억 달러(약 7조8000억원, 2016년 기준)
시가총액 1477억 달러(약 158조7332억원)
주요 제품 그래픽 칩(GPU),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등



4

5



6



드뷔시 '달빛' 연주보기



2016년 2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쇼팽콩쿠르 갈라 콘서트.

쇼팽 협주곡 1번만 60번 연주

50번 이후부터 만족할 만한 연주 나와...

앨범 발매 때는 100번 재녹음하기도



조성진 “나는 음악할 땐 이상할 정도로 완벽주의자”

피플 인사이드 “음악할 때는 완벽주의자로 변한다.” 피아니스트 조성진(24)이 연주를 만드는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성진은 지난해 말 한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목표와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조성진은 2015년 쇼팽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고, 지난해 뉴욕 카네기홀에 데뷔해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했다. 국내 무대에 설 때마다 짧은 시간에 티켓을 매진시키는 그는 최근 음악계의 빅스타로 떠올랐다. 글=김호정 <중앙일보> 기자

Q. 연습을 어떻게 하나. 비법이 있나.

전혀 없다. 예를 들어 베를린필과 협연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2악장 같은 경우는 솔로 첫 페이지를 계속 쳐본다. 한번은 느리게, 한번은 또 다른 템포로.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어디를 클라이막스로 둘까, 어떤 부분을 작게 했다가 올라가야 하나, 무게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 손의 각도를 어떻게 할까 정한다. 기본적으로 작곡가가 적어놓은 것에서 너무 벗어나는 건 안 좋아한다.

Q. 연습보다 실전 무대가 더 많이 이어지는 스케줄로 보인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연주를 점점 만족스럽게 만들어보는 것이다.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무대에서 긴장한 나머지 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끝나자마자 대기실로 가서 악보에 표시를 해본다. 세모, 별표, 동그라미를 치고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다. 그러면 다음엔 그 부분이 괜찮아진다. 다른 부분이 이상해지면 또 표시를 해놓고 그럼 좀 연주가 나아진다. 그게 재미있다.

Q. 만족할 수 있는 연주가 점점 많아지나.

만족할 수 있는 연주를 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 쇼팽 콩쿠르 이후 2년 동안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만 60번 정도 연주했다. 50번 이후부터는 세는 걸 그만뒀다. 근데 그 정도 하나만 만족할 만한 연주가 점점 더 나온다. 요즘에는 같은 프로그램을 10번 정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행운이다. 쇼팽 콩쿠르 우승 이전에는 이것저것 했다. 투어는 상상도 못했다.

Q. 무대에서는 본능적으로 판단해서 연주하나. 음색에 대한 감각 같은 건 연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연습으로 된다. 연습으로 웬만한 건 다 된다. 오히려 테크닉이 안 되는 것 같다. 기술적인 건 오히려 타고나는 것 같다. 누구든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예를 들어 나는 프로코피예프를 좋아하지만 소나타 7번이 어렵게 느껴진다. 거친 소리를 내야겠다는 걸 아는데 그게 쉽게 되진 않는다. 프로코피예프 6·7·8번 소나타는 어두우면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야 하는데 힘들다. 나는 항상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위해서부터 추구하고 연주하려 노력했다. 근데 프로코피예프는 멜로디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진다.

Q. 굉장히 미묘한 차이에 대해 예민한 듯하다.

좀 완벽주의자라서 음반 녹음하기도 힘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곡을 한번에 쳐서 녹음하는 윈테이크로 갔다. 정말 힘들었다. 드뷔시 '영상' 몇 곡과 '기쁨의 섬' 빼고는 다 한번에 녹음했다.

Q. 보통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다른 녹음에서 따와서 편집하던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쇼팽 발라드를 녹음할 때 긴 건테 발라드 1번을 30번 정도 쳤다. 다 들어봤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부분을 다른 테이크로 들어보면 흐름이 안 맞았다. 다른 식으로 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뷔시 할 때는 웬만하면 윈테이크로 가자고 생각했다.

Q. 이번 드뷔시 앨범에서 가장 많이 연주한 곡은 뭐고 몇 번이나 쳤나.

내 성격이 좀 이상하다. 치다가 중간에 틀리면 그냥 버리고 끝까지 안 쳤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곡이 힘들었다. 드뷔시 '영상' 1권 3번 '움직임'은 100번 정도 했던 것 같다. 녹음은 그래도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 녹음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 있는 곡이고 만족스럽게 하려고 녹음 하는 거니까. 협주곡 녹음은 오히려 더 쉬웠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근데 독주는 더 어려웠다. 음악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 꼼꼼한 성격도 아닌데 음악할 때만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처럼 변한다.

Q. 최종적으로는 만족스러웠나.

당시에는 만족스러웠는데 프로듀서가 보내주면 또 만족스럽지가 않다. 한번씩 들어보니 마음에 드는 곡과 그렇지 않은 곡이 있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듣지 않는다. 이번 앨범에서는 베



201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팽 콩쿠르 시상식.

르가마스크 모음곡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Q. 자신만의 소리와 해석은 어떻게 찾나.

중·고등학생 정도까지는 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들과 다르게 치는 게 개성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피아노를 치는 한 나만의 목소리는 어떻게 해서든 나온다. 그래서 개성에 신경을 안 쓴 지 꽤 됐다. 나만의 해석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악보를 딱 보고 생각나는 대로 친다.

Q. 건반을 치는 시간보다 악보 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 듯하다.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내숭이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맞는 연습량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너댓 시간 이상 하면 힘들고 집중도 안 된다. 그 이후로는 오히려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연습 안 할 때는 악보를 보고 고전·낭만곡은 여기에서 포인트를 줘구나 하고 깨닫는다. 음악도 듣는다. 사실 음악을 연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냥 누워 있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Q. 그냥 보기에는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있을까 싶다.

베를린필과 연주가 확정되고 나서 카네기홀에서 재초청을 받았다. 2018-2019 시즌에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또 한다. 베를린필과 연주한 후 경력 면에서 내 위치가 완전히 바뀌고 연주 제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다. 신기했다. 문제는 지휘자다. 더 좋은 지휘자를 만날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

Q. 좋은 지휘자가 자극이 되나.

지휘자의 리허설 보는 것을 좋아한다. 유튜브에서 지휘자들의 리허설을 찾아서 맨날 본다. 아르농쿠르, 카리안, 클라이버가 리허설 하는 게 재미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될 원하는지 본다.

Q. 지휘자가 될 생각도 있나.

지휘는 하고 싶지만 지휘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10년, 20년 후에 모차르트 협주곡 정도는 지휘하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악단을 맡아서 하고 싶진 않다. 그러지 안 되는 것 같다.

Q. 앞으로 어떤 레퍼토리를 늘릴 생각인가.

사실 작곡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번은 A부터 Z까지 작곡가 이름을 나열해 봤는데 20명 미만 정도였다. 바흐로 시작해서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드뷔시... S는 좀 많아서 슈만, 슈베르트, 그래도 20명이 채 안 됐다. 피아노 곡은 많지만 작곡가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



강연 동영상 보기

Ted 강연 ① 로라 밴더캠 18분 안에 인생을 바꿀 영감이 떠오르는 곳이 있다. 바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을 소개하는 Ted 강연이다. <사보신문>에서는 효율적으로 시간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신디/자료출처=『강연 읽는 시간』

‘다사다망’한 당신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법



취업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372명이 ‘작년 한 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로 다사다망(多事多忙·일이 많아 몹시 바쁨)을 꼽았다고 한다. 이 땅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면 바쁨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진다. 지친 일상에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은 실천 가능한 일인가 할까? 바쁜 스케줄 속에 허덕이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로라 밴더캠(Laura Vanderkam)의 테드 강연 ‘자유 시간을 제어하는 법’을 들어보자. 다른 시간 관리법 강의와 달리 그녀의 강의는 시간에 대한 본질을 건드린다. 너무 바빠서 강의 들을 짚도 없는 당신을 위해 요점정리했다. 잠시 시간을 내 강연을 ‘읽고’ 자신만의 시간관리 계획을 세워 2018년을 더욱의 미 있게 만들어보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분, 초 단위로 나누어 쓸 것이라고 믿는다. 가령 신호대기 중일 때 메일 체크하기, 점심시간에 인터넷 강의 듣기, 퇴근길 지하철에서 영어 회화 공부하기 등 이런 자투리 시간조차 빈틈없이 잘 활용해야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나 로라 밴더캠의 연구에 따르면 그런 숨 막히는 시간 절약법은 완전히 잘못됐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법을 알아 보자.

STEP1 시간의 탄력성과 선택성을 기억하기

시간관리의 핵심은 자투리 시간을 절약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 갈 때 시간은 저절로 절약된다. 이는 시간의 탄력성과 선택성 때문이다. 만약 바쁜 직장인에게 일주일에 6시간 정도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고개를 흔들며 말할 것이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말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 갑자기 없던 업무가 떨어진다면 어떨까? 6시간은 물론이고 10시간도 만들어 그 일을 해내고 만다. 이것이 ‘시간의 탄력성’이다. 시간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이라 우리가 쓰려고 하는 곳에 맞춰 늘어난다는 것이 시간의 탄력성이다.

또한 시간은 ‘선택’의 문제다. 로라 밴더캠이 인터뷰한 여성 CEO는 이런 말을 했다. “제가 하는 모든 일, 사용하는 매시간은 저의 선택이에요. x, y나 z를 할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x, y나 z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죠.” 즉 시간은 선택이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전 진짜 바쁘다고요.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당신이 바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한 시간 운동하는 데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퇴근 후 다들 빛의 속도로 헬스장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시간관리의 비결이 자투리 시간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선순위를 잘 관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STEP2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산해보기

일과 육아에 치여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거나 몇백억짜리 계약이 걸려 있는 프레젠테이션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이 조언은 크게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그런 시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당신의 인생이 계속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 시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시간처럼 평등한 게 또 있을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도 시간은 있다. 한 주에 주어진 168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전

일제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8시간 숙면을 취한다고 해도 우리에게겐 여전히 72시간이 있다. 친구와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를 떨어봤자 3~4시간 아니던가. 72시간은 무언가를 하기에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한다고 가정해 다시 계산해보자.

이 경우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52시간이 남는다. 이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이 정말 매일 그렇게 일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주 5일, 1일 12시간 (오전 8시~오후 9시) 근무의 경우

한 주의 시간	168시간	24시간×7일=168시간
노동시간	60시간	12시간×주 5일 = 60시간
수면 시간	56시간	8시간×7일 = 56시간
남은 시간	52시간	168-60-56 = 52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오전 8시~오후 5시) 근무의 경우

한 주의 시간	168시간	24시간×7일=168시간
노동 시간	40시간	8시간×주5일 = 40시간
수면 시간	56시간	8시간×7일 = 56시간
남은 시간	72시간	168-40-56 = 72시간

사람들의 추정 노동시간을 비교한 로라 밴더캠의 연구 결과, 주당 75시간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제 노동시간은 50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양과 노동의 시간은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과대평가하는 반면,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는 것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STEP3 할 일의 우선순위 목록 만들기

중요한 일은 할 일의 우선순위 목록을 만드는 일이다. ‘역산 스케줄링’은 지금이 한 주의 끝 혹은 한 해의 끝이라고 가정하고, 그때 이루어졌을 리스트와 우선순위를 만들어보는 방식이다. 지금이 12월 31일이라 생각하고 이뤘다면 좋을, 이루지 못했다면 아쉬운 일이 무엇인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가? 시간을 거슬러 스케줄을 짜다보면 이번 주, 오늘 해야 할 일이 좀 더 명확해진다. 시간을 되돌려 질문하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일’, ‘관계’, ‘나 자신’ 이렇게 세 범주에 대한 목록을 만들면 효과적이다.

STEP4 금요일 오후 시간대 활용하기

금요일 오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팁 중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금요일 오후는 업무를 일찍 마무리하고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금요일 오후를 ‘낮은 기회비용의 시간대’라고 부른다. 제대로 놀지도 않으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다음주에 해야 할 우선순위 목록을 생각해보자.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일주일 동안 주어진 168시간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시간을 부여받는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가 아닐까. 로라 밴더캠의 강의는 그동안 시는 게 너무 바쁘다며 징징거렸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상기시킨다. 오늘도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차분하게 우선순위를 정리해보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시간은 당신을 위해 존재할 것이다.



로라 밴더캠 (Laura Vanderkam)

미국의 비즈니스맨과 워킹맘들에게 인기 있는 저술가이자 언론인으로 USA투데이 집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그녀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저서로는 『시간창조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준비된 하루』, 『따분한 직장에서 탈출하기』 등이 있으며 직업과 인생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동산책 | 색다른 디저트가 생각날 땐 익선동 수플레 맛집을 방문해보자.

개화기풍 이색 디저트 카페 동백양과점

서양 문물이 유입돼 새로운 문화가 꽃피우던 1900년대 개화기 시대의 찻집을 방문한다면 '동백양과점'과 같지 않을까? 세월의 향기가 묻어나는 익선동 골목 중간쯤 위치한 이곳은 그 시절 멋과 풍류를 그대로 살려냈다. 금방이라도 모던걸과 모던보이로 가득 찰 것 같은 동백양과점은 익선동 방문 시 꼭 들러야 할 핫 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이곳의 대표 인기 메뉴는 딸기 수플레, 딸기 후르츠티, 아몬드 모카자바로 맛은 물론 비주얼까지 훌륭해 방문하는 사람들과 SNS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이 집만의 특별한 맛의 비법은 모든 재료를 그날그날 수제로 만들어 준비하는 데 있다. 특히 수플레 팬케이크는 아침에 만든 수제 반죽에 주문과 동시에 처낸 머랭을 같이 써서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자랑한다. 주문 후 20여 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풍미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수플레와 함께 곁들이면 더 맛있는 딸기 후르츠티 역시 동백양과점의 인기 메뉴다. 제철을 맞은 딸기를 통째로 갈아 넣어 몽골몽골한 식감을 살린 딸기 후르츠티는 딸기 본연의 새콤달콤한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빈티지한 찻잔들은 동백양과점 대표의 부모님 혼수품으로 더욱 예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디저트와 음료의 맛은 물론 개화기 정취까지 살린 동백양과점. 곧 봄맞이 시즌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날이 풀리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맛있는 디저트와 복고 분위기에 취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글=강은비/사진=이슬기



1, 2 1937년 지어진 한옥을 개조한 동백양과점 외부와 내부 전경. 3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 딸기 수플레. 가격은 2만3000원. 4, 5 직접 담근 과일청과 아몬드 시럽으로 더욱 풍부한 맛을 낸 아몬드 모카자바 크림커피와 딸기 후르츠티. 각각 8500원.



동백양과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28길 17-24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1시
문의 02-744-1224

똑똑한 회사생활 TIP

업무 이메일 작성이 어려운 신입사원을 위한 기본 작성 팁.

직장인의 기본, 이메일 작성 비법

이메일 제목은 짧고 정확한 문구로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메일 제목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한다. 핵심 키워드 앞에 [공지], [긴급], [중요], [협조] 등 말머리를 넣어 수신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부 업체에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는 말머리에 회사 이름을 적기도 한다.

본문은 결론부터 명확, 간결하게

첫 문장은 인사로 시작한다. 수신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인사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적고 본인 소속을 밝히는 게 좋다. 인사말 다음 첫 번째 단락은 짧은 시간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이 길어질 경우 단락을 활용해 구분하자. 한 단락은 3~5줄 정도로 구성하고 핵심 내용은 굵은 글씨, 색, 밑줄 등으로 강조해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는 것도 비법이다.

요청 내용은 한 번 더 강조, 정리하기

간단한 끝인사로 메일을 마치기 전에 피드백이 필요한 핵심 요청사항은 한 번 더 정리하자.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회신일, 요청사항, 회의 일정 등이 되어서 보내면 수신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원하는 내용을 받을 수 있다. 이메일 작성 후에는 바로 보내지 말고 항상 다시 보는 습관을 갖자. 맞춤법과 파일 미첨부라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참조(CC)와 숨은 참조(BCC) 활용하기

참조는 수신자 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 보낼 때 사용한다. 참조로 메일을 보내면 업무가 공유돼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업무 협조 요청 메일을 보낼 때 양쪽 팀장님을 참조로 넣으면 공신력이 생긴다. 숨은 참조는 수신인 모르게 참조인의 노출을 제한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발송할 때도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니 필요시에 활용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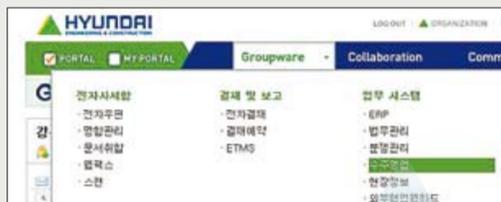
그룹웨어 돋보기

해외 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뿐 아니라 국가별 자료가 필요한 임직원이라면 '해외 국가정보 시스템'을 주목하자.

포털사이트보다 정확한 해외 자료 '해외 국가정보 시스템'

'해외 국가정보 시스템(MIS·Market Intelligence System)'에서는 총 265개 항목으로 분류된 데이터를 유관 현업 부서 담당자들이 검토하며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특히 해외지사에서 보고된 최신 현지 동향과 국내의 주요 매체 기사 등은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 현재는 8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내 8개국 추가 등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최신 업데이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문의: 해외마케팅전략팀, ☎ 2240, 5530



STEP1 접속하기

그룹웨어 메인 화면 상단 메뉴 'GROUPWARE-업무시스템-수주영업'을 클릭하면 새창이 뜬다. 첫 번째 버튼인 '해외 국가정보'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접속 완료! 주소창에 http://bis.hdec.co.kr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그룹웨어 로그인 필요)

▶수주영업 시스템 새창



STEP2 자료찾기

메인 화면 지도에서 국가를 선택해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상단 중앙의 '검색창'에 나라를 입력해도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단 일부 데이터의 경우 접속 권한을 별도 지정해 관리, 운영 중이니 권한 미보유 자료는 전자결재 승인 후 열람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STEP3 활용하기

검색한 자료는 열람, 출력,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자. 등록돼 있는 자료 중 수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메인 화면 우측 중앙에 위치한 '수정제안'을 클릭하자. 수정제안 사항과 이를 보충할 자료도 함께 등록할 수 있다.





Paper, Present:

너를 위한 선물 展

종이로 빛은 판타지 아날로그 소재인 종이와 등나무 덩굴, 갈대밭 등 세련된 현대미술품으로 재탄생한다. 종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전시가 오는 5월 27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순수예술뿐 아니라 가구, 조명, 제품, 공간 디자인 등에서 활약하는 국내외 아티스트 10팀이 참여했다. 전시는 7개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각 입구마다 쓰인 '오밤 이정현' 작가의 서정적인 글귀가 공간에 풍성한 스토리를 더한다. 그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것은 '페이퍼 아트계의 가우디'라 불리는 리처드 스위니(Richard Sweeney)의 작품. 리처드 스위니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의 물성만을 활용해 오브제부터 건축적 구조까지 자유자재로 만든다. 전시에 소개되는 그의 크고 작은 작품들은 고요한 새벽, 반짝이는 별빛을 연상시키며 종이의 우아한 면모를 드러낸다. 또한 미국 작가 타히티 퍼슨(Tahiti Pehrson)의 작품 '섬세한 손길이 만든 햇살'은 기하학적 무늬를 정교하게 새겨 사방에 화려한 그림자를 쏟아낸다. 그 밖에도 명품 브랜드와 협업해온 프랑스 듀오 디자이너 짐앤주(Zim&Zou)와 디자인 스튜디오 완다 바르셀로나(Wanda Barcelona)는 화려하면서도 동화적인 종이의 세계를 선보이고, 국내 디자인 그룹 '마음 스튜디오'는 핑크빛 종이 갈대밭으로 관람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 2018.05.27 / 대림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길 21 / 02-720-0667



1 완다 바르셀로나, Les Invasions for exhibition "Christian Dior, le couturier du reve", 2017, paper, 200m² ©Dior 2 짐앤주, Cabinet of Curiosities, 2012, Paper and adhesive 3 리처드 스위니, Untitled, 2017, paper, monofilament nylon, lead and adhesive, 1000xD190xH200cm © Sculpture and Photography Richard Sweeney 4 짐앤주, Cabinet of Curiosities(Green), 2012, paper and scotch, W80xD80xH100cm ©Zim&Zou 5 리처드 스위니, Untitled, 2017, Paper, monofilament nylon and adhesive, W1000xD190xH200cm 6 토라푸 아키텍츠, Airvase, 2010, Paper, Ø19.3cm 7 타히티 퍼슨, The New Beginning, 2017, Paper, W792xH183cm